



'책' 없이 해외포교도 없다

해외 포교에 있어 현지 언어로 쓰인 불교서적의 영향이 얼마나 크...



비롯하여 하버드대학교 등 몇몇 명문대학에 불교학 교수 확보와 강좌를 개설하여 유지하고 있다.

해의 포교에 있어 현지 언어 구사 능력을 갖춘 포교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현지 언어로 된 포교서적이 필요한 이유이다.

해의포교를 위해 한국인이 발행한 현지 언어 서적현황은 어떠한가? 다른 나라 언어는 접어들고라도 교포가 많이 살고 있는 미국에 현지 언어를 위한 영어서적은 얼마나 될까?

일본 불교서적은 차차하고 한국불교역사와 문화에 대한 것만 보더라도 한국과 인연이 있는 몇몇 학자들에게 의한 몇 권의 학술서적 외에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번 역하여 '불교성전' 40개국 배포 효과 커

전 세계로 외국어로 된 종합 포교자료 개발 절실

포교 밖에서 미칠 수 없는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만시지탄이 있지만, 근래에 동국대학교가 뉴욕주립대와 공동으로 원효전서를 영역하고 있는 등 다소의 희망적 노력이 있기도 하다.

장래를 위하여 다양한 한국불교관련서적이 영어를 포함하여 여러 외국어로 번역되어야 함이 절실하며, 외국어로 된 종합적 포교자료 개발사업이 종단적 지원 속에 계속 추구되어야 한다.

진철 스님(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

군승특별교구 신설 의의와 과제 군불교 총본산 건립 '이상무!'

포교정책 체계화·법당운영·의식 등 변화 예산확보·종단내 권한과 의무 조율 남아

군 포교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지하)가 지난 3월 18일 특별교구 설치를 골자로 한 중헌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따라 그간 담보상태에 머물렀던 '군승특별교구 설립'에 물꼬가 터졌다.

군 포교 정책도 체계적으로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군법당 운영시스템 확립, 군신도의 신행체계·법회·의식 통일 등 장기적 군 포교 비전을 입안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승특별교구의 세부 밀그림도 속속 그려지고 있다. 종법초안을 입안 중인 군승특별교구추진위원회(위원장 성광·군불교위원장)는 추진 일정 조율을 위해 3월 25일 포교원에서 회의를 열고 '가칭'군 포교법안'을 마련, 오는 6월 중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공청회도 4월 중에 개최해 최종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군승특별교구 설치

특히 군승특별교구 설치의 제정 빈약 등의 고질적인 군 포교 예산 문제를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교구내 자체 예산 집행이 외에도 종단의 집중적인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군 포교 정책도 체계적으로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군법당 운영시스템 확립, 군신도의 신행체계·법회·의식 통일 등 장기적 군 포교 비전을 입안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승특별교구의 세부 밀그림도 속속 그려지고 있다. 종법초안을 입안 중인 군승특별교구추진위원회(위원장 성광·군불교위원장)는 추진 일정 조율을 위해 3월 25일 포교원에서 회의를 열고 '가칭'군 포교법안'을 마련, 오는 6월 중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공청회도 4월 중에 개최해 최종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군승특별교구 설치

놓고 임장자를 보였던 조계종 중앙종무기. 중앙종회, 군불교위원회, 군승회의 등도 '특별교구' 주지의 임명·선출 및 자격 조건'을 '선(先)특별교구 추천, 후(後)총무원장 임명'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자격도 예비역 군법사를 포함한 군 포교 경험이 있는 중진급 비구로 했다.

포 교구로서의 권한 및 의무 이행 범위 등은 사안에 따라 적용키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선거권, 중회참정권 등의 권리행사는 '제한' 쪽에 무게를 두는 한편, 중앙교구분담금 등의 교구로서의 의무 이행은 '면제' 방향으로 잡았다.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장 지원 스님은 "군승특별교구 권한의 '제한'과 '허용', 의무의 '면제'와 '유예' 등은 이해관계 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중회에서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군불교 통합 홈페이지 구축 국군불교총신도회, 창립 4주년 맞아



국군불교총신도회는 3월22일 열린 창립 4주년 기념법회에서 통합홈페이지 구축 등 조직활성화 대책을 밝혔다.

국군불교총신도회(회장 권영기)는 3월 22일 군불교 통합 홈페이지(www.buddha.mil.kr)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조직력 다지기에 나섰다.

군불총은 군승교구와 군불총, 일선 군사찰을 하나로 연결한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 3월 29일부터 일반에 공개했다.

통합 홈페이지는 국군불교뉴스, 우리신도회 활동 소개, 군포교 후원 등의 코너를 통해 전군 차원의 의사소통 채널로 활용될 계획이다.

권영기 중장(국방대학교 총장)

은 "발족 4년이 됐지만 아직은 전군적인 동정과 인식 확산을 위한 조직이나 업무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조직 활성화를 위해 △장교 및 사병 불자 관리 체계 확립 △군포교 후원단체 네트워크 확립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불총은 3월 22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송영근 육군기무사령관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4주년 기념법회를 병행했다.

권영진 기자

조계종이 자원봉사 및 후원 문화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조계종 기획실장 여연 스님은 3월 24일 △박람회·축제·공모 △자원봉사교육 △모금캠페인 △의국인상당·지원 등을 큰 틀로 하는 '나눔으로 하나되는 세상' 기간강담회를 개최했다.

'나눔으로 하나되는 세상' 운동전개 조계종, 4월부터 자원봉사 축제 등

신문사 등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총 2억3천6백여만 원을 예산으로 올 4월부터 진행된다. 우수자원봉사사례를 발굴해 표창하는 '불교자원봉사활동 공모전'은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사진, 비디오 제출수기를 접수 받는다.

남동우 기자

조계종마을 내달 29일 준공식

스리랑카 라투나푸라서, 법장스님등 참석

스리랑카 조계종 마을 준공식이 4월 29일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비롯, 16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라투나푸라에서 병행된다.

조계종은 "3월 말 완공을 예정으로 현재 약 80% 이상 공사가 진행됐다"며 "공사가 완료되면 이 지역 수재민을 위한 주택 100여채를 비롯, 법당, 설법전, 마늘회관, 보건소, 우체국, 직업재활센터가 들어서게 된다"고 3월 22일 밝혔다.

또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현지 방문단은 8번마다 거행되는 캔디 불치사의 부처님 치어사리 친견 행사도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계종 마을은 지난 해 5월 발생한 스리랑카 수재민을 돕기 위

해, 교구본사 중심으로 모은 성금으로 준비되고 있다. 지원문의 : 02)2011-1823

남동우 기자

필동 中大병원 매입 동국대, 교육공간 활용

동국대(총장 홍기삼)가 교육 공간 확보를 위해 서울 필동의 중앙대 부속병원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국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월 이사회에서 추후 승인을 받기로 하고 필동병원을 매입했으며, 오는 12월 인수작업이 끝나게 된다"고 3월 24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필동병원은 리모델링을 통해 강의실과 연구실 등 교육 공간

으로 활용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앙대 부속 필동병원엔 높이 11층인 구관과 4층의 신관을 갖춘 연건평 4천8백 평 규모다.

한편, 학교법인 동국학원(이사장 현해)은 3월 31일 오전 10시30분 다원호텔에서 제19회 이사회를 열어 일선 불교병원 경제상황 운영 문제와 정관 개정건을 논의한다.

한영우 기자

조계종 원로회의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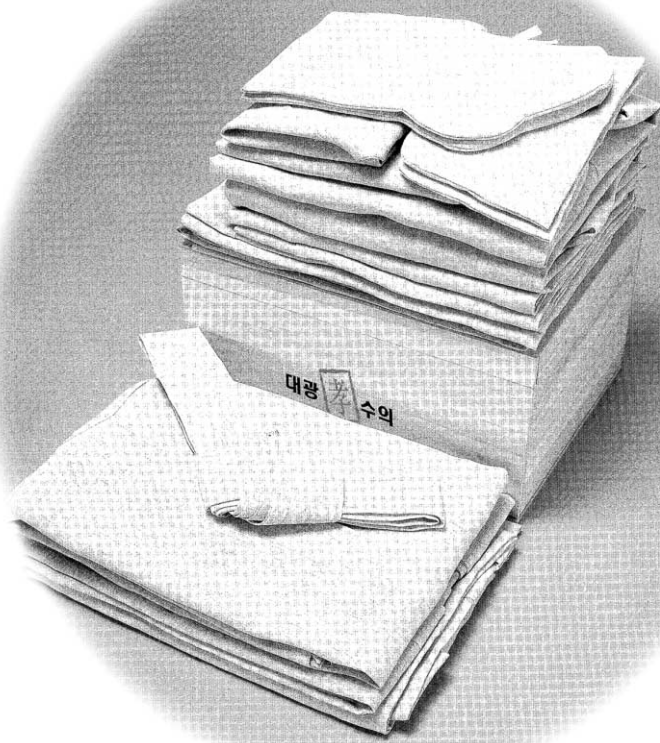
조계종 제23차 원로회의(의장 도원)가 3월 31일 오후 2시부터 4월 1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선 △중헌개정안 인준의 건 △의상단 선출의 건 △원로회의법정에 관한 건 △법원사 관련 중헌개정안 인준의 건 등을 다룬다.

남동우 기자

윤년 윤달의 효도 선물 대광[孝]수의로 하세요

갑신년 윤달 수의 특별가로 불자님들을 모십니다 불자님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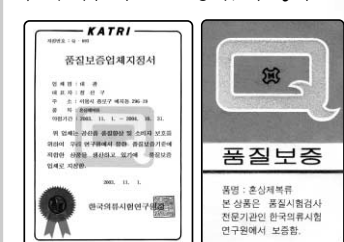


수의 가격표

Table with 4 columns: 상품명, 재질(성분), 원사가공지, 판매가격. Lists various types of watercloths and their prices.

윤달3월21~4월20일 원하시는 날 받으실 수 있도록 예약 주문 받습니다.

수의제품 품질보증업체 Q마크 획득



세시풍속(歲時風俗)

윤달(潤月)은 재액없이 무난하게 여기고 모든일을 거리낌없이 하는 풍속이 내려오고 있다. 특히 일년중에 한달이 더 있는 윤달에는 손재 등이 없는 기간으로 모든일에 부정을 타거나 액이 끼이지 않는 달로 인식되어 왔고, 그래서 평소에 꺼려하던 이장(조상의 묘를 옮기는 일), 집을 헐고 새로 짓는 일 등을 윤달에 하는 것이 저급까지 내려오고 있는 예이다.

대광[孝]윤년수의를 미리 마련해 놓으시면...

- 1) 믿을 수 있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여유있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시중에는 혼란된 원단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고가품으로 둔갑하여 유통되고 있으나 윤년 윤달에 "대광"에서는 고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막상 큰일을 당하여 급한 나머지 아무 수의나 임해드린 후 후회하는 일을 겪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고품질의 수의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큰일을 당하여 경험없는 중에 저가품의 수의를 비싼 가격에 구입하시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은 현재 유통의 문제점입니다. 좋은 품질의 수의를 저렴한 시기 윤달에 구입하시는 것은 이단점들을 고려해 볼때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
3) 급한 윤년 "대광상사"에서는 좋은 삼베만을 골라 한올한올 공경과 정성의 마음을 담아 맞춤 바느질한 제품을 그동안 대광 삼베를 성원해 주신 보답으로 불자님 여러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4) 수의의 옷감은 자연섬유로만 사용되어야 매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수년만에 윤달이 가장 좋은 해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길년에 효도하시고 고품질에 수의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시어 두가지의 행운을 함께 하십시오.

윤년에 수의를 준비하시는 불자님에게는 오동나무 상자를 무료로 공급해 드립니다.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 296-19 광정시장(1층) 대광수의 TEL. 02)2275-8075, 2279-7450 FAX. 02)2272-6715